

지 상 범 석

'영합' 신경 안써도 돼요

어떤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나와 남의 구별도 없어지고 자유롭고 정결한 마음이 됩니다

자비를 완전히 갖춘 분이 부처님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현법열반(現法涅槃)을 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법열반이란 살아 생전에 터득하는 열반을 말하는 것이며 부처님은 현법열반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행연기 어려운, 항상변치않는 마음으로 즐거움, 그리고 자유롭고 정결한 경지가 터득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행복이라 할 것이고 옛사람들이 그것을 열반적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열반적정을 부처님 한 분의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잘못입니다. 불법은 만인의것, 모든사람에게 터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 등의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덧없고 불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다'라는 사실에 매달려 끝간데 없이 소유하려 하고 탐욕에 빠져버린다면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두가지 극단을 다 경계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도 "너희를 비유는 나의 설법을 땀땀같이 여겨라"고 강조하시며 극단의 위험을 깨우쳐주셨습니다. 중도는 모든 존재를 관찰함에 있어서 존재 자체가 무상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영원과 무상 사이의 올바른 것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며, 나타내지도 않고, 인식될 수도 없으며, 무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힌 중생들이 어두운 눈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극단이며 어느 한쪽에도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어느 것이 양극단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확고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이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는 마음이 바르게 서면 영합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신론(起信論)에는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신앙의 본질적인 영합은 자신이 진여의 변환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서 삼보에 간절히 귀의하여 멀어졌던 진여로 복귀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잃었던 진여로 복귀하였을 때, 너와 나의 진여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와 나의 차별을 보지 않을 때 남의 괴로움과 나

진정 자신에 눈뜨게 되면 이제까지 자신이라고 단정한 모든 것이 작고 이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바로 알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 즐거움을 들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았을때 몸과 마음이 느긋함을 느끼니, 이것이 바로 해탈이며 법락(法樂)입니다. 다시 무슨 욕구가 있었습니까. 이를 멀리 불법의 영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객지의 거지 신세가 당장에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 아니 만족스러우며, 조금 전까지 욕심의 노예였던 법부가 당장에 진여불국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그 어찌 영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 무슨 욕망이 남았겠습니까. 불법은 만물이 피어나기만을 바라지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큰 꽃, 작은 꽃을 피우는 것은 초목자신들의 능력이며 특징입니다. 확실히 믿고 성스러운 영합이 오늘의 이 땅에 가득히 내려지도록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나 영합이니 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본질적인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양형진 불거불래

오늘은 팔봉종도 중에 하나 남은 불거불래(不去來)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이를 중론 제2장 관개래품(觀去來品)의 첫번째 계승에서 살펴보자. "이미 지나간 것에는 간다는 것이 없으며,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에도 간다는 것은 없다.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을 떠나 지금 지나가는 것에도 또한 간다는 것은 없다." (已去有無去 未去亦無去 離已去未去 去時亦無去) 이 계승은 과거와 미래, 현재에 대하여 간다는 작용이 불가득(不可得)임을 논증하고 있다. 과거에 이미 간 것이나 미래에 아직 간 일이 없는 것에는 간다는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동작이 실현된 일이 없기 때문에 간다는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재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다는 작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용수보살은 이마져 부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고전 물리학에 불확정성의 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린 것이 아니라 물체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념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확정성 원리를 직선 운동에 대하여 적용하면 삼차원 공간에서의 운동 속도의 세 성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속성은 원리상 완벽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양자역학은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역학적으로 불거불래의 의미를 살펴 본다면 물체의 운동 속성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운동하는 작용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문제는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논의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불거불래와

'간다' '온다' 동작부정 불확정성 원리와 연관 운동속성·작용실체 직관에 의해 파악돼야

이해 대해 청목 스님은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반은 가고 아직 반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작용마저도 이미 간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주석을 하고 있다. 동작을 관찰하는 사람은 자신이 현재 지나가고 있는 작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방금 지나간 과거의 동작을 파악하고 사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불거불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가고 올이라는 운동을 다루고 있다. 이를 물리학과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운동과 운동의 속성 혹은 자성이라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뉴턴의 고전 물리학의 내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현대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에서의 불확정성원리와 연관되는 내용이다. 양자역학이나 불확정성 원리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의 운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생각하여 보자. 고전 물리학은 거의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의 속성이라는 것을 상정한다. 그리고 그 속성은 물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측정하기만 하면

"인과 가르침 통해 집착 털어 버리고 모든것 포용할 때 반야지혜 얻게돼"

반적정이라는 것인데, 열반에는 네가지 덕이 있다고 합니다. 즉 깨달음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까 상(常), 고통이 없으니 낙(樂), 자유롭고 구속이 없으니 정(淨)이라 합니다. 이 상낙아정의 넷을 열반이 갖추고 있는 네가지 덕이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때 소승불교도나 인도의 다른 종교인들이 생각하였듯이 열반을 소극적, 허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열반은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속에서 터득하여야 하는 것이 육체의 사후에 도달하는 무여열반같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불교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자신을 도박속에 파묻어 버리니까 힘든 고리나 개념은 잊어도 문제가 안돼지요. 그것을 문제삼는것은 불법에 산다는 것을 잊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도에 살고 있을때 그런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도를 구하는 생활속에서라면 영원한 행복이 실감될 것 입니다. 체험에는 깊고 알음이 있었습니까 다만 도를 구하는 생활속에는 무엇이었고

상낙아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그러한 것으로서 도를 구하고 불법을 실천해 가는 생활속에서 만나게 되는 영원히 변치않음과 즐거움과 자유로움과 정결함입니다. 상낙아정의 집합체인 열반적정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참된 불교신자는 상낙아정의 소극적 경지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의 구원과 불사를 위하여 힘차게 활동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불성(佛性)이라고 불리우는 진실된 자기이며 따라서 지혜와 자비의 주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를 대상으로 관찰함에 있어서 두가지 극단론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불멸하며 영원하다는 상견(常見)과, 반대로 존재를 무상(無常)으로 보는 단견(斷見)을 말합니다. 상견은 불질불변론이며 세상을 자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무상은 지나친 부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바로 눈 앞에 두고 모두가 허무한데 저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죽으면 그만인데 노력해서 무엇이 쓸 것인

실천 기준이 있지 않으면 자칫 관념의 함정에 빠져 이도 저도 아닌 헛된 삶을 살기 쉽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중도의 함정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어느 쪽에도 붙지않고 백로주같은 중간에도 걸리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집착하기 쉬운 모든 요소들을 초월하여 그것에 걸리지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겁냄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에 부딪치면 오래 벗어나려는 노력이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선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기네 처지에서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어려움이 없는 삶을 누리고자 노력한 결과 오늘의 문물을 낳은 것입니다. 아무리 살기좋은 여건을 만들어내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나기 마련인 것이 인간의 격정거리입니다. 슬한 어려움의 난관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자는 노력이 절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나 영합이니 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본질적인

'95 신·편입생 모집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2. 학교연혁
3. 특전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5. 원서교부 문의처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하여 절구통으로 방이를 찼어서 먹던 쌀과 같이 원하는 분도로 즉석 정미한 저분도 쌀을 먹으면 됩니다.
절구통표 米壽米 - 현미저분도쌀
1. 현미의 문제점: ① 먹기 어렵다. ② 영양성취율이 떨어진다. ③ 묵은 현미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2. 왜냐하면 상인들이 현미의 먹기 어려움점을 악용하여 묵은 벼로 현미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먹기어려운 현미를 그냥 먹으려는 것은 먹지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4. 먹기엔 백미처럼 부드럽게 먹고 영양은 현미처럼 풍부하게 먹을수 있다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2분도 현미(주식으로)+미강가루(없음)=현미(먹기 어렵다)
3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쉽다)
4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더 쉽다)
5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조금 더 쉽다)
6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아주 더 쉽다)
5. 변비에 특효인 미강가루는 거치는 쌀겨가 아니고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말로 생산하여 쌀과 함께 드립니다.
6. 회원이 원하는 분도별 쌀을 주문받아 생산하여 배달하는 것이므로 신선도, 맛, 영양가에서 뛰어납니다.
7. 회원의 집까지 배달됩니다.(20kg이상) 대리점모집중
8. 원하는 분도별 쌀 kg당가는 1,950원 입니다.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 231-5421 ~ 2, 235-1846 ~ 7
正米食(쌀을 바르게 먹음)이든 米壽食(어든어덜함이 되는 해에 베푸는 잔치)이다.

地藏菩薩
중국구화산 신라승 肉身佛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
중국 구화산 지장성지 현지 촬영 완성!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이었습니다.
현미백년 동안 단 한분도 꺼지지 않는 김지장육신보전의 향불! 석가모니불로부터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 구제를 위해 삼생을 나무시는 무불시대의 메시아!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을 아십니까?
제1부: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
제2부: 꺼지지 않는 김지장 깃발
비디오 구입문의: 02-233-2830
우편판매 온라인 구매번호 예금주
외환은행: 139-13-05983-7 김행수
우체국: 011213-0068986 김행수